

# 教授任用に學位만이 必要한가

金 東 旭  
(檀國大 東洋學研究所長)

요즈음 범람하고 있는 博士學位論文을 볼 때 학문을 하는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大學教授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의 비중은 단순히 박사학위 소지 여부보다 학문적 성취도와 그 가능성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요원 公採도 학위 소지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推薦制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

요즈음 신문광고에 教授公採를 하던서 ‘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요구 단서가 꼭 붙고 있다. 아직까지는 채용측의 희망 사항이지만, 필자 주위에서도 70대 1까지의 경쟁을 한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에 채용된 사람은 박사학위 소지자였고 플러스 四柱 합격자이기도 하였다.

이 채용된 장본인들은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수이고, 현재의 논문 편수도 몇 편이 되지 않는다. 직급은 전임강사이다. 거기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수석어도 붙고 있다. 유능한 기성 교수 한 사람의 봉급을 가지고도 전임강사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게다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 대학원 강사나, 대학원 개설의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약속 빠른 학교 경영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봉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점이 또 있다.

이들은 대개 스트레이트로 석사, 박사를 하여

나이는 30세 미만이다. 그러니 교육자로는 아직 이르고 경험도 부족하다. 필자와 같은 해방 후 졸업생에게는 수난의 시대에 살은 기억 속에서 부러움기 한량이 없는 쇼트 카트이다. 이들은 아직 학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라도 理工系라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人文社會系라면, 대학 교수가 지식의 소매상이 아닌 이상, 그 방면의 체계적 지식을 갖추고 연구 경력도 갖추어야 하고 교육 경력도 갖추어야 함에 있어서는 어딘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하기야 필자가 '50년대 무급조교를 하고 있을 때 필자의 후배가 초·중등의 교사 경력으로 어엿한 정식 교수로 임명된 경우도 있으니 어느 시대이고 모순이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추세가 논문을 많이 쓴 기성 교수의 스카우트보다는 헛병아리의 학위소지자 선호를 부채질하고, 지방의 어느 대학에서는 총장이 학위 취득을 독촉하는 바람에 가짜 박사학위를 사들이는 추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는 해방 후 졸

업생으로는 최초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때 필자 나이 46세였다. 그러니 급석지감이 없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또 금년 '86년도의 입학 시즌에는 소위 대학원 대학의 입학지망자가 수천명에 이르러 옛날 학부 입학지망자 수에 비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원 교수는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檀大에 7~8명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大, 延大, 高大에 대학원 교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모순이 아닌가? 대학원에 교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학생은 몰려오나? 박사학위야말로 어느 교수 지도라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리에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학교 단위로 평가되어서야 말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다.

또 박사학위는 범학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 안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학벌을 부채질하고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필자도 1년에 국문학, 복식 등에서 몇 편의 논문을 심사해 하고 있으나 필자가 심사에 들어가면 난도질을 당하니까 경원당하는 현상이고, 학위논문의 출판도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앞으로 박사학위는 부실화할 위험마저 있다. 앞으로는 불탄서와 같이 국가박사제가 도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의 현상은 박사학위의 상미적인 저하로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마당에 박사학위가 교수 공채의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러한 모순 투성이의 한국 박사학위 취득에 있어서 당분간 舊制를 연장하여 주는 배려도 바람직하고 적어도 인문 사회계에서는 제도에 쫓기는 듯한 학위 난조를 막아야 하는 당위도 절실히 느낀다. 이런 현상은 연륜이 낮은 한국학계의 모순이 剔決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 입안자들의 과오도 개제하고 있을 것이다.

옆 나라 일본은 아직도 舊制가 존재한다. 또 이런 학위 수여는 학교에 어느 정도 제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보다는 국내 학위에 권위를 부여하는 자주성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많은 외국 박사의 어떤 사람들이 국내에서 그 학위논문

을 발표했는가 조사해 보면 알 것이다. 공식으로는 박사를 받은 대학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성실치 않다.

이러한 모든 모순은 학문의 결과로서 학위를 요구했던 현실과 지금은 학문의 시작으로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과도기적 갈등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이것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를 분리해서 시행하지 않은 데서 오는 차이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인문사회 계통은 연륜이 문제이므로 조교 생활이나 강사 생활이나 하다 못해 고등학교 교사경력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탄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석학이 많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제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1년만 가르치면 그 교제를 위하여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가르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세계적인 명저를 낼 수 있다. 오늘의 대부분의 한국 대학도 그 교수가 1년에 맡는 교과 과목이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은 때론 노오트 갖고도 평생을 교수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4년만에 자기가 가르쳤던 교과 과목이 돌아오는 그런 커리큘럼이 바람직하다. 현재 140학점으로 고정시켜 놓고 대학이 고등학교로 환한 현실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백일몽이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이 요망되고 있지만, 교수가 한 사람도 없는 대학원 대학이 양두구육이 아닐까?

더구나 교수 1인당의 주당 학점수가 너무나 많다. 9학점이라고 못 박은 대학은 명목뿐이고 한 교수가 12~15학점을 가르치고 여기에 또 대학원까지 맡고 있고, 데모가 일어나면 파수병 노릇을 해야 한다. 어느 何暇에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 II

대학 교수가 생활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장을 學海라고 한다면, 이 학해는 광대무변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자연인도 다양하다. 그 중에는 고레가 있고, 물개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피라

미가 있고, 새우도 있다. 이런 자연인은 또한 학벌로 나누어지고, 지연으로 나누어지고, 정년이 가까운 대교수로부터 엇그제 천신만고 교수 공채의 관문을 뚫고 대학의 문에 기어오른 사람도 있다.

이 사회에는 보직이란 위계 질서 아닌 학문의 권위라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보직을 주로 한 위계 질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학해의 위계 질서이다. 원래 대학 교수는 40대를 전후하여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학문을 하겠다는 교수와 보직만 기우거리는 교수로……. 일부 대학 교수는 학내의 보직을 가지고 서로 반목이 심하다. 이것은 다시 다음의 전임 채용에 있어 자기네 派를 영입하는 수단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어느 경우는 승기자를 었지(勝己者厭之)하는 심리로 자기보다 학문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막고, 자기네 派閥을 형성하기에 바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뛰어나고 유능한 교수를 초빙해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례서야 한국의 대학의 존립 자체도 의심받을 지경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문의 권위를 부정하고 학문의 위계 질서를 거부하는 이런 따위의 파당 행위가 있는 한 학문의 발달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대학에 있어서만은 학벌에 구애 없이 학문적 위계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피라미가 들어와서 고래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학해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는 학문의 존엄성을 위해서 우리 학해의 공동 질서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임강사로 들어와서 교수로 나가는 교수는 그 나름대로 오랜 적공이 있기 마련이지만, 기중에는 무능 교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교수재임용제도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 이 몇 해 동안에 203명의 교수가 나갔지만, 이들 모두가 무능 교수여서 나간 것만은 아닐 것이다.

### III

전국에 현재 10,000명 정도의 대학 교수가 있

으니 누구라도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직업으로서의 대학 교수가 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학자나 학문하는 대학 교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어릴 때부터 제질을 우선 타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수준 이상의 대학을 나와 대학원 과정을 마친 다음에 조교 생활과 강사 생활을 몇 년은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과선의 圭角이 짝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도하는 교수의 훈도를 받아 학문하는 방법과 對人 관계를 몸에 배게 익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대학 조교는 연구조교는 이름뿐이고 유명무실하며 이런 조교 양성을 제대로 하는 대학도 현재는 없는 성실다. 나는 대학원 과정은 마치지 않았어도 조교 과정 3년의 경력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무급조교이긴 하였어도 적어도 장서 10,000원이 있는 연구실에서 몇 년을 겪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의 조교를 볼 때에 연민의 경이 앞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 조교는 사환에 불과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연구소의 조교제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조교로서 방 하나를 할당받고 월급을 받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3년 동안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물려받은 徒弟制度의 유제라고 보거나 이것은 다시 3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3년 내지 6년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학문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대학 교수로서 설 수 있을 것 같다.

서울대도 '50년대 중반까지는 무급일망정 이런 제도가 살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뒤에 도서관 중앙도서관으로 흡수한 후부터는 이런 조교제도는 사라졌다고 고는 바이다. 현재도 전국에 상당수의 조교라는 이름의 제도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학문의 수련을 겪고 나가느냐 하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서울대학교 등이 대학원 대학을 표방하고 많은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앉아서 공부할 책상과 자리도 없으니 이는 유명무실의 제도일 뿐이다. 국내가 이러니 외국에 유학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외국에 가도 학부를 어디서 나왔느냐가 문제이지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고 해도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될 것이다.

다만 학문이란 대전제에 놓고 볼 때에 이제까지 대학 교수의 수급 관계가 안이하게 다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 IV

얼마 전에 동경대학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1년을 머물고 간 사람에게 평을 들어 보았다. 그 친구가 어려운 입을 떼면서 한 이야기는 1) 한국에는 연구실에 박독관이 있더라, 2) 한국 교수들은 어울려서 술을 잘 마시는데 이는 인간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 3) 한국에는 저녁때 나가는 통근 버스가 있더라 등이다. 10년 전에 한 교수는 캠퍼스를 밤에 둘러보고 불이 켜 있는 연구실이 없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있었다. 한국의 교수들 중에는 이런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내에 데모가 나면 교수들이 주옥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학장 시대에 어느 외인 교수는 학생이 교수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학생은 교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하고 일갈을 했다지만, 서울에에도 학생이 “선생님 강의시간인데 강의 안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학생은 교수보고 강의를 하느냐 읽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했다던가, 막걸리집에 앉아 있는 교수보고 “이번 시간이 강의 시간인데요.” 하니 교수 왈 “아직 철쭉꽃이 지지 않았지?”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라는 이야기는 이제 신화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해방 후인지라 이 분들에게 권위가 있어 보였다. 학생들은 그것을 교수의 결격 사유로 보지 않고 오히려 권위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런 瞞人 교수가 사라짐으로 해서 한국의 교수 사회는 속화되어 갔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의 이런 방약무도한 태도에 오히려 갈채를 보냈고, 또 그것을 인간적인 거리에서 이해했다.

당시 우리는 학문을 혼자하는 것이고 교수는

다만 학문을 하는 안내자로 생각했었다. 학생들은 혼자 연구실에서 연구실 책 속에서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였다. 나 자신 연구실 안에서 교수야 휴강하거나 말거나 왕조실록을 뒤졌는데 이때의 섭렵을 지금까지 소중한 밑천으로 간직하고 있다. 물론 이런 학문의 신화 시대는 과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V

요즈음 공채로 채용되는 대학 교수의 신입생에서부터 40대, 좀 늦으면 50대 초반까지도, 요즈음의 사회 풍조를 알아서인가 그들의 처세는 가관이다.

우선 그들은 勝己者를 厭之한다는 세속인의 심리를 알아서, 자기들보다 실력이 우수하거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동료로 들어오는 것을 우선 경원한다. 대학이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단일 학벌로 뭉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도교수제도 운영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정정당당히 실력주의로 대학 교수가 전형되지 않고 인적 관계로 임혀지는 체적을 안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륜이 낮은 한국의 대학에서는 어차피 이질적인 교수를 영합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그 대학 출신의 교수와 대학 출신의 교수가 50 대 50으로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많은 학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학위를 갖지 않은 교수 사회에 후배라도 학위를 가진 교수가 들어올 때에 그들은 학위라는 권위에 빙자하여 예의에 벗어난 것을 많이 저지른다. 학문을 해 본 사람이면 학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는 점을 명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극상의 풍조와 바람을 일으킨다.

#### VI

현재 나도 몇 명의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이것은 과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학생들은 평소에 논문을 써서 그 集積

된 것을 한편의 논문으로 엮어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써 온 것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총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겠다. 논문을 쓸 줄조차도 모른다. 즉 저서와 논문의 구별도 모른다. 선배에 대한 예의도 모른다. 연구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어휘와 문장 인용의 한계도 모른다.

현재는 原典 탐색보다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는 경향이 있다. 논문은 하나의 창조 활동이다. 국학 제정의 경우, 원전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다. 한글 세대의 논문들은 원전에 대한 탐색을 포기한다. 그것은 원전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작 번역된 것을 가지고 원전으로 삼는다. 이런 원전에 대한 본문 비판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이런 집념이 없는 나약한 학자를 양산하니 중국이나 일본의 학풍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가 저으기 의심스러운 때가 많다. 더구나 현대의 많은 논문들이 서구의 이론을 살짝 도금한 나약한 어덤테이션이 많다.

이런 면에서는 요즘은 범람하고 있는 학위논문이라는 것이 일종의 레포트이지 논문이 될 수 없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논문은 시대에 따라 스타일이 있는 법이니, 이 어느 하나라도 다 누적된 한국 학계가 책임질 여건이지만, 후생이 가외라는 외경의 염으로 읽기보다는 적당히 잘 꾸몄구나 하는 논문들이 많은 것은 안타깝다. 더구나 평론과 논문을 구별 못하는 것도 간혹 있다. 불란서에 있어서는 콘쥬가손 몇 개만 틀려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결벽성이 없고, 논문에 한자 틀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은 그 기본 실력을 의심하게 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를 탓하여야 할지 모를 일이지만, 이런 것은 사전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찾으려 할 일이니 학문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까지 박사십사를 하면서, 공로를 인정하여 학위는 줄 수 있지만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한 논문이 나중에 어엿이 출판되어 나왔을 때,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이는 선배의 충언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적 풍토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박사십사가 간혹 인정에 끌려서 통과시

키는 것이 많다는 것도 부인 못할 것이다.

물론 이 반대로 지도교수나 주심의 인간적인 노여움을 사서 학위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독일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위의 권위와 난조를 막기 위해서 국가심사를 거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학위에 대한 심사는 학자 사회의 최후의 관문이니 만큼 심사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외국 박사는 물론 국내 박사에게 있어서도 출판물의 무화할 강제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고언도 그것이 사실이라도 쉽사리 할 말은 아닌 줄은 안다.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 통과시키는 것이 보통인 현실에서 박사 학위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관문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임은 학문과 인정을 구별할 줄 모르는 우리 기성 세대가 져야 한다.

학문은 학문이다라는 명확한 논리를 무시하는 데서 이런 폐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이런 여파로 우리나라에는 소위 서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판 정신의 결여를 의미한다. 비판 정신이 결여된 사회에서 학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40대 전반에서 학문의 길을 포기하고 잡투에 몰리는 것도 바로 이런 병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자를 존경하고 대우하는 사조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바로잡을 사람은 학자들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 학자 사회에서 비판 정신이 사라진다면, 일반 시정사회나 다름 바가 없을 것이다. 고집스럽고 꼬장꼬장하고 시비시비 정신에 앞장섰던 선비정신이 학자 사회에서 사라진다면 학자 사회의 뼈를 빼는 일인데, 음성적으로야 침묵으로 표시는 하지만, 자기들 자신의 持身에게까지 세속을 닮아서 비판을 외면하고 적당주의가 지배한다면 지하의 선비들이 통곡을 할 그것이다.

그런데 학계에는 이런 속물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 학문과 인간의 정리는 다르다는 것을 선배들이 선도해야 할 것이다. 학자의 생명이 학문 연구에 있는 것이고 이를 비판한다는 것은 학자에게 소여된 특권인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학자됨의 자살 행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대학의 공채에도 학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推薦狀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추천서를 쓸 때에도 고민은 있다. 이때 우리가 선별할 기준은 있다. 인간성이 학위보다 우세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에 맞추지만, 적어도 대학 교수라면 장래의 학문적 성취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진정한 학자의 설 자리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런 추천제의 위력을 발휘하는 세계가 선진 사회이다. 여기에도 부조리는 있지만, 학계라는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학원 당국자가 자진해서 대상자를 찾든가 철저하게 추천제를 활용하든가 하여 신문에 공채 광고를 내야 하는 사례는 막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학자라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천을 함으로써 그 인간성까지 책임지는 것이니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공채로 채용된 교수가 비위를 저질렀을 때 또는 학자로는 무능력자였을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학원을 지배하고 있는 하극상의 이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학계의 위계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